



'25.10.31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 · 태

○ 韓, APEC 앞두고 '사제총기 의심 부품 통관' 수사

- 10.27 언론은 경찰청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세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'사제총기 의심 부품 통관'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, 테러 시도 가능성은 고려한 사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

○ 韩, 국내에서 사상 최대 자금 테러단체에 지원한 우즈벡人 구속

- 10.27 경기남부경찰청은 아프리카 우물 추진 자선단체 지원을 가장하여 9억5천만여원을 모금한 뒤 테러단체인 KTJ와 하마스 등에 전달한 20대 우즈베키스탄人을 테러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

※ 同人은 국내 입국 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테러자금 지원 활동을 한 전력이 있다고 부언

○ 韩, 시진핑 APEC 참석 앞두고 '협중시위 관리강화' 방안 마련

- 10.28 언론은 경찰청이 한중관계 혼란 등 외교문제와 국가 이미지 실추와 관련하여 '협중시위 관리강화' 방안으로 불법행위 채증 강화, 집시법 위반 행위 관련 수사 등을 신속히 착수할 방침이라고 보도

※ 특히, 경찰관 폭행, 대사관 침입 등 명백한 불법 행위는 채증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인 인지 수사를 실시하고, 협중 시위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부언

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, 보코하람 무장세력 50명 사살

- 10.24 나이지리아 軍 당국은 북동부 군사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응해 50명 이상의 무장 세력을 사살했으며, 지상군이 공군의 지원을 받아 도주한 무장세력 조직원 70여명을 추적 중이라고 발표

미 주

○ 폐루, 'Z세대 시위 격화' 폐루 수도에 30일간 비상사태 선포

- 10.22 언론은 폐루에서 대통령 탄핵 후 정국 혼란이 계속되어 수도 리마에 30일간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, 경찰의 범죄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군인이 배치되고, 영장 없는 가택 수색도 가능하다고 보도
 - * 언론은 Z세대 청년(1990~2000년 초반生)들이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무능한 기득권층이 문제라며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부언

○ 美, 링컨대 행사중 총격 발생해 1명 사망·6명 부상

- 10.26 언론은 펜실베니아주 링컨대에서 홈커밍 행사 중 총격으로 1명 사망하고 6명이 다쳤으며, 워싱턴 하워드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도
 - ※ 언론은 현재 FBI 등 주·지방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수사 중이라고 부언

유럽

○ 英, 무기 확보해 테러 모의한 나치주의 극단주의자 중형 선고

- 10.22 영국 법원은 이슬람 사원과 유대교 회당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 新나치주의 극단주의자 3명을 다량의 무기 확보 및 극단주의 단체 결성 등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최고 징역 11년형을 선고
 - ※ 언론은 이들이 「아돌프 히틀러」와 나치를 우상화하며 극우 이념을 추종하고 무슬림, 유대인, 이민자 등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해왔다고 부언

중동

○ 이스라엘軍, 드론이용 표적 공격으로 PIJ요원 1명 사망

- 10.26 언론은 이스라엘軍이 가자지구 지역에서 하마스 연계 조직 팔레스타인 이슬라믹자하드(PIJ) 요원을 드론으로 공습해 1명이 사망했으며, 휴전선 밖 지역에서의 공격으로 양측이 휴전 위반을 주장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

역사 속 테러사건

Weekly Terrorism Trends

러시아 '코갈림아비아 항공' 여객기 폭탄테러

- '15.10.31 이집트를 출발하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러시아 '코갈림아비아' 항공사의 여객기가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폭발로 추락
 - * 승객 217명과 승무원 7명 등 탑승자 224명 전원 사망



- 폭발원인에 대해 기체결함 및 미사일 피격 등 다양한 가능성성이 제기되었으나, 11.17 합동조사 결과 음료캔을 이용한 폭탄테러로 결론
 - 美 위성자료上 외부공격 未식별, 항공기 블랙박스 内 폭탄 테러 정황 발견, 美·英 정보당국 ISIS의 테러 관련 교신내용 등 확인
 - ISIS가 11.15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배포하면서, 이번 테러가 '러시아의 시리아 공습'에 대한 보복이라고 언급
- 러시아 정부는 11.1을 '추도의 날'로 선포 후 추모행사를 진행하였으며, 사건 이후 시리아 内 ISIS 소탕 작전을 강력하게 추진

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〈 시나이 반도 〉

- (개요)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은 이집트 영토로 중동의 종교적 숭배 대상인 '신(sin : 달의 신)'에서 지명이 유래, 석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수에즈 운하가 인접해 지정학적으로 중요성 高
- (역사) 고대 이집트인들의 오랜 영토였으나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왕래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침략전쟁이 발생, 동로마제국 · 오스만제국 · 영국 · 이스라엘 등의 지배를 받았으며 현재는 이집트가 지배
- (정세) 과거 관광지로 유명하였으나, 한국인 관광버스 폭탄테러('14.2), ISIS의 알라우다 사원 폭탄테러('17.11) 등 테러가 빈발, 외교부에서는 '특별여행경보'지역으로 지정

